

Hair Style이 印象形成에 미치는 影響

尹素映* · 俞泰順

大邱가톨릭大學校 衣類學科 碩士*, 大邱가톨릭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The Effect of Hair Style for Impression Formation

So Young Yoon* and Tai Soon Yoo

MA., Dept. of Textiles & Cloth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rof., Dept. of Textiles & Cloth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fundamental data of impression formation research by analysing and observing the various facial image that can be effected from hair style as well as be helpful for choosing suitable hair style for T.P.O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targeted 305 college women in Daegu and Gyung-book area. Hair Style Image Scale(HSIS)was used the scale of seven point modified the S-D(Semantic Differential) method.

The analysis of impression formation effect of hair style using SPSS WIN package have completed from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by Varimax perpendicular rotation method and ANOVA was used to recognize the difference in impression formation according to hair style change. In the case of statistical difference was appeared, LSD post-verification was applied for tha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is as followed ;

1. The factors of impression formation effected by hair style were classified as goodwill factor, refinement factor, elegance factor and individuality factor.
2. In terms of goodwill factor, long hair style showed highest level and short cut hair, bobbed hair in an order. In refinement facto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short cut hair and bobbed hair and both of them was higher than long hair. In elegance factor, long hair was highest and bobbed hair was lowest. In individuality factor, short cut hair and bobbed hair higher than long hair and no difference between short cut hair and bobbed hair.

I. 서론

현대의 복식문화는 의복을 포함한 모자, 신발, 그 외의 모든 장신구와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과 함께 패션에 관련된 각 요소들이 그 시대의 미의식에 의해 나타나는 유행에 따라 변화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상호 긴밀한 관계의 통일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토탈 패션(total fashion)의 경향을 띄

고 있다. 이러한 패션의 토탈화는 20세기 현대산업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특히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토탈 패션에서 갖는 비중은 그 전 시대 보다 훨씬 확대되었다.

패션은 원래 인위적인 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의상이나 화장, 가구, 생활양식, 상품디자인, 미술상의 각종 스타일, 음악 형식, 사상, 경향 등에 넓게 적용된다. 여러가지 요소들 중에서 의상, 화장, 헤어스타일은 인체

를 장식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복잡하고 대중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타인과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서로의 顔面認知를 떠난 대인관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사회생활을 촉자는 얼굴과 얼굴의 관계라 하여 '얼굴은 사회의 관절면'이라 비유할 정도로 서로의 안면인지를 인간 사회생활의 중요한 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조용진, 1999).

여성들의 미에 대한 강한 욕구는 머리 치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헤어스타일은 그 시대 의복의 형태와 함께 많은 변천을 해왔다. 두발은 신체의 머리 부분에 대한 보호 기능과 인간의 미적 추구를 위한 장식적 수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근래에는 후자의 기능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외모를 나타내주는 일반적인 양상뿐만 아니라 의복과 마찬가지로 인상형성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착용자에 대한 무엇인가를 전달해주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의 독창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헤어스타일도 각자의 개성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이 선택되고 있다.

또한 헤어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 변인 중의 하나로서(Cash, 1985) 사회의 개방화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개성 표현의 수단이 되고, 매스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유행 및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한 복식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헤어스타일이 의복과 동떨어진 독자적 부분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의복에 따르는 부수적 복식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의복의 구입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용이하며, 착시효과로 얼굴형을 쉽게 교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주는 개인의 이미지는 의복에 의한 이미지 변화 못지 않게 차이와 변화가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복의 토털 패션 가운데 중요한 요소인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얼굴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관찰하여 분석함으로써 인상형성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T.P.O에 적합한 헤어스타일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상형성

인상형성이란 첫 대면에서 어떤 정보들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일관성 있는 인상을 형성한다(Sears 외, 1985, pp. 5~6).

인상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의 핵심은 타인에 의해 제시되는 단편적인 여러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인상형성 과정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은 형태주의 이론(Gestalt theory)이다. 형태주의적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인 Asch(1946, p. 258~290)는 낱개의 여러 정보들의 의미가 고정된 것들이 아니라 그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았다. 즉 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이 접근을 형태적 접근 또는 인지적 접근이라고도 한다.

이 접근의 연구로는 중심특질, 제시순서효과, 배경효과에 관한 이론들이 있다. 중심특질에서는 '따스하다 - 차다'라는 형용사가 중심특질로 부각되어 이것을 중심으로 대상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고, 그 밖의 형용사는 주변특질이 되어 중심특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어 최종 인상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가 주어진 순서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순서효과이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보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또는 나중에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인상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순서효과에는 초두효과와 최신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제한된 소수의 정보만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그를 만났던 장소와 배경, 즉 맥락(context)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Freedman 외, 1981).

2. 얼굴 및 외모와 인상형성

신체의 부위 중 얼굴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첫 번째 신체적 특성으로 타인들과의 대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흥미의 초점이 되고, 그 형태적 특성에 따라 다

른 인상을 전달하게 된다(Delong, 1968, pp. 199~208).

神山 등(1989, pp. 33~43)은 외모(의복, 인물, 신체)와 성격특성 지각간에 관련성이 있으리라고 가정하고 여성의 외모에 대해 남녀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그 결과 남녀 피험자에게서 의복의 기발함, 신기함은 적극성, 경솔함, 사회성과 관련되며 외모의 둥글 둥글함은 사회성과, 외모의 밝음은 적극성과 관련됨이 공통으로 발견되었으며 여성 피험자에게서 현저한 것은 신체와 얼굴의 뚱뚱함, 크기를 통하여 관대함, 적극성이 지각되며 신체와 얼굴의 딱딱함과 균형은 높은 사려성, 적극성과 관련되어 지각됨이 나타났다.

Conner 등(1975, pp. 32~41)은 첫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의복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3가지 인상(활동적 인상, 사회적 인상, 지적 인상)의 사람과 통제를 위한 마네킹에게 3가지 인상의 의복과 통제복을 서로 바꾸어가며 착용시킨 후 그 사진에 대한 인상을 측정한 결과, 활동적인 첫 인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복과 사람이었고, 사회적 인상에는 사람보다 의복의 효과가 컸으며, 지적인 첫 인상 지각에는 의복이 다소 영향을 미치나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통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지적 인상의 사람이 가장 사회적 인상으로, 사회적 인상의 사람이 가장 지적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람에게 따른 인상차이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Burger(1981)는 피험자가 남자를 평가할 때는 얼굴이 전체 인상의 약 50%를 설명하고 체형이 약 10%를 설명하였으나, 여자를 평가할 때는 체형이 전체인상의 50%를 설명하고 얼굴이 10%를 설명하여 여자의 신체적 매력 평가시 체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얼굴 특징, 체형 균형 및 체중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적 매력은 직장지원자의 경우 호의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었고 고용결정에 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정상 체형의 착용자가 더 호의적인 평가적 차원의 인상을 주었고, 더 호의적인 외모적 차원의 인상을 주었다.

모델의 얼굴이 매력적일수록 상위직으로 추론되는 경향과 4가지 인상차원 중 외모·능력성과 개성 인상에서 더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서 지위 및 인상추론에도 얼굴 매력성의 후광효과가 작용하였고, 동일한 의복이라도 매력적인 모델이 착용한 경우에는 보다

더 상위직으로 추론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므로 지위 추론에 얼굴 매력성이 후광효과로 작용함도 밝힐 수 있었다(이선경 & 고애란, 1995, pp. 230~241).

남성복 스타일과 얼굴의 매력성이 직업특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이선경(1993)의 연구에서 회사원, 고위직, 세일즈맨, 연예인, 화가, 노동자의 유형으로 조작된 의복유형은 직업특성 지각의 4개 인상요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사원 스타일이 가장 매력적이고 품위·능력 있는 것으로, 화가와 연예인 유형이 가장 개성적이며 창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회사원·고위직 유형이 지배적으로, 노동자·화가 유형이 가장 소박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문영보(1991, pp. 62~64)는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활동적 인상형성에는 의복 스타일과 의복무늬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사회적 의복 스타일과 점무늬, 줄무늬가 활동적 인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Butler와 Rossel(1989, pp. 57~59)의 연구에서 여교사가 착용한 의복유형(suit, dress, pants, jeans)에 따른 교사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평가는 착용한 의복의 격식 차림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Jean을 착용한 교사는 재미있고 접근이 쉬운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나, 지적능력이 낮고 선생님다운 외모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고, Suit를 착용한 교사는 접근이 어렵고 재미가 없으며 숙제를 내주는 권위 있는 선생님의 외모로 지각되었고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강혜원과 고애란(1991, pp. 211~227)은 여대생과 중년여성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복의 디자인과 배색이 한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한복의 현대적/전통적 배색은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지 저고리 색을 통제된 경우에 현대적 배색방법은 인상 중 현대성 차원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통적 배색은 여대생 집단에서만 평가·품위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3. 헤어스타일과 인상형성

헤어스타일이란 머리형이나 머리형태, 머리풍을 말

하는 것으로서 헤어 두(hair do)라고도 하며, 프랑스어의 꼬아퓨르(coiffure)에 해당한다. 복식이 집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한다면 헤어스타일은 상징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eterson과 Curran(1976, pp. 331~339)은 남성 머리형의 변화에 대한 여대생의 시각에서 짧은 머리의 남성이 일반적으로 선호되어,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성-매력 가설에 관련하여 짧은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수적이었고, 반면에 긴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다 진보적이었다. 이 경우에 남성의 머리 길이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단서로 보여졌으며, 이러한 점에서 여성들은 자기 자신들과 가장 비슷하다고 지각되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hannah(1968)는 성격지각에 있어서 의복과 머리색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따뜻한 색은 대담하고 진취적이며 차가운 색은 조용하고 후퇴하는 느낌을 준다는 가정하에 머리색(흑발, 금발)과 의복색(빨강색, 하늘색)의 변인을 결합한 4장의 사진을 한 사람의 자극인물로 제작하였다. 첫 번째는 검정색 가발에 빨강색 의복, 두 번째는 금발의 가발에 하늘색 의복, 세 번째는 금발의 가발에 빨강색 의복, 네 번째는 검정색 가발에 하늘색 의복을 착용한 사진이었다. 연구 결과 양과 음의 인상은 가발과 의복색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의복이 다른 외모단서와 결합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ancer와 Meind(1978, pp. 1328~1330)은 머리카락 길이가 성격에 대한 인상에서 주목할만한 효과를 가져서 긴 머리의 남자는 짧은 머리의 남자에 비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다고 하였으며 얼굴 매력은 입, 눈, 얼굴구조, 머리카락, 코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여 헤어스타일도 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양휴(1996, pp. 25~40)는 패션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에서 성격과 헤어스타일간에는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그는 20대 여성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스타일은 긴 직모로서 부분 염색한 스타일이고,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은 커트 직모의 전체 염색한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성격

이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강인성, 허위성 모두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과 싫어하는 헤어스타일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연(1991, pp. 55~58)은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 이미지와 형태의 비교연구에서 직모는 수수하고 자연스럽게 청순한 이미지를 주고 곱은 촌스럽고 성숙한 이미지를 주며 짧은 머리는 도시적이고 남성적이며 중간머리는 촌스럽고 평범하며, 긴 머리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앞머리를 내린 경우는 촌스러운 이미지이고 앞머리를 넘긴 경우는 발랄하며 가리마가 없는 경우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에 의한 헤어스타일 제작은 각 개인에게 적합한 헤어스타일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4.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

Graham과 Jouhar(1981, pp. 199~208)는 화장, 즉 이 경우에는 얼굴화장과 머리카락 손질이 외모평가와 개성평가를 향상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매력이 있는 자극을 주는 여성 4명의 컬러사진을 찍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실험조건이 있었다. 화장을 하지 않고 감지 않은 상태의 대체로 잘 손질한 머리카락 ; 중간정도의 화장과 잘 감아서 손질하여 자른 유행형 헤어스타일 ; 중간정도의 화장과 감지 않은 상태의 대체로 잘 손질한 머리카락 ;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잘 감아서 잘 손질한 컷 모양의 헤어스타일을 16명의 남성과 16명의 여성들이 이 사진을 관찰했다. 이들은 각 조건에서 자극을 주는 한 사람을 발견했지만, 한 가지 조건 이상의 경우에서는 자극을 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은 외모와 관련한 6가지 항목 - 여성스러움, 신체적 매력, 말쑥함, 깔끔함, 유쾌함, 성숙도 -에 대한 7점 척도와 14가지 개성 항목을 이용해서 관찰한 자극을 주는 네 사람을 평가했다. 이 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화장품 사용이 남성과 여성들에게서 모두 좀더 호감이 가는 외모라는 평가와 좀더 호감이 가는 개성이라는 평가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Graham과 Furnham(1981, pp. 36~42)은 화장과 머리의 손질을 조작한 20대 여성에 대해서 28세부터 41세까지의 남녀에게 평가를 구했다. 그것에 의하면, 옹모의 화장조건은 여성스러움이 강하며, 신체적 매력이 있고, 성숙 하다고 보여지며 게다가 성실하며 사교적, 자신감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인지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인지 경향은 옹마두형 머리의 손질효과를 상승하는 것이다. 또 머리의 손질이 이것에 더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증대하는 관계를 볼 수 있다. 다만 여성다움과 신체적 매력도에 대해서는 화장만 하고 머리의 손질이 없는 조건에서 보다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00년 8월 25일에서 2000년 9월 1일 사이에 대구·경북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잘못이 있거나 한 문항이라도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305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자극물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상을 측정하기 위한 의미미분척도는 Osgood 등(1978), 박혜선(1982), 도주연(1991), 이경희(1991)의 선행연구와 조용진의 '얼굴, 한국인의 낯'(1999)에서 얼굴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형용사, 그리고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자유응답 결과를 통해 얻어진 얼굴의 인상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는 135개의 형용사쌍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135쌍의 형용사는 전문가 집단(국문학자, 의류학자)의 평가를 받아 그 중 인상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 66쌍을 선정하여, 이를 S.D 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에 의한 7점 Likert법으로 측정하였다.

피실험자들에게 헤어스타일 3종류의 총 3장의 슬라이드를 차례로 한 장당 5분간 보여 주어 그 느낌을 평

가하게 하였다.

3. 연구절차

1) 실험모델선정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모델은 '얼굴, 한국인의 낯'(조용진, 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인의 평균얼굴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모델의 얼굴을 직접 계측하여 가장 이상적인 모델 1명을 선정하였다.

2) 헤어스타일의 선정

헤어스타일에 사용된 가발은 최근에 유행하는 스타일 중에서 기본적인 형을 선택하였다. 긴 머리는 귀밑 20cm 길이, 단발머리는 귀밑 5cm 길이, 컷트 머리는 귀가 나오는 정도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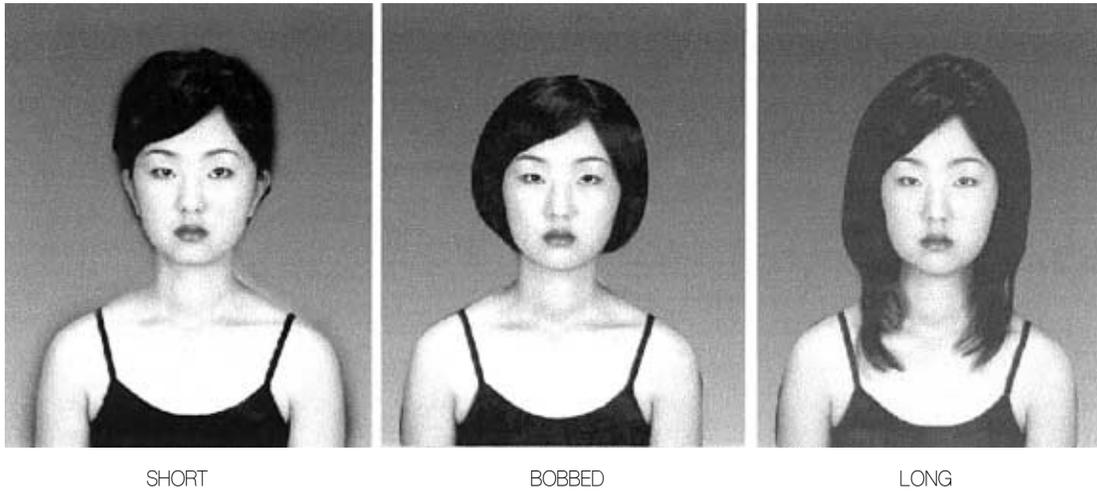
헤어스타일의 유형 분류는 여러 헤어디자이너의 자문을 구하여 형태가 크게 구별되는 3가지의 헤어스타일을 선정하였는데, 앞머리는 90° 말 유행 경향에 따라서 앞으로 넘기는 스타일만 정하였다.

3) 사진촬영

헤어스타일 변화에 따른 가발을 착용한 모델을 정면에서 상반신만 촬영하였다. 이때 얼굴 표정은 표정에 따른 오차를 없애기 위해 무표정하게 촬영하였고, 헤어스타일 3종류의 총 3장의 사진을 측정도구로 제작하였다. 사진 촬영시 사용한 사진기는 중형카메라 Mamiya RB670이고, 사진기와 모델과의 거리는 동일하게 1.5m 이며, 피험자의 얼굴 부위에 초점을 맞춰 촬영하였다. 배경색은 검정색이며 조명으로 약간의 그라데이션(gradation)을 주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에는 SPSS WIN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헤어스타일에 의한 인상형성의 분석은 Varimax 직교회전법에 의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그림 1> 헤어스타일 3유형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단변인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LSD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눈에 띄는-눈에 안 띄는, 멋있는-멋없는, 화사한-칙칙한」등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2.1% 이고 전체변량의 3.5%를 설명하며 이것을 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IV. 결 과

1. 인상형성 관련 요인 분석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상형성 관련 요인을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얻어진 4개 요인을 Varimax 직교회전 한 결과 다음과 같다.

제1요인은 「따뜻한-차가운, 인상이 좋은-인상이 좋지 않은, 편안한-불편한」등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18.7% 이고 전체 변량의 30.7%를 설명하며 이것을 호의성 요인으로, 제2요인은 「도시적인-전원적인, 적극적인-소극적인, 현대적인-고전적인」등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6.9% 이고 전체변량의 11.4%를 설명하며 이것을 세련성 요인으로, 제3요인은 「성실한-성실하지 못한, 책임감 있는-책임감 없는, 품위있는-품위없는」등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2.8% 이고 전체변량의 4.6%를 설명하며 이것을 품위성 요인으로, 제4요인은

2.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인상형성 차이 분석

헤어스타일(커트머리, 단발머리, 긴 머리)의 변화에 따른 인상형성 4개요인(호의성 요인, 세련성 요인, 품위성 요인, 개성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다.

1) 호의성 요인

헤어스타일(커트머리, 단발머리, 긴 머리)에 따라 인상형성 요인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헤어스타일을 반복측정 변인으로 하고 인상형성 4개요인 중 호의성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다.

위의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헤어스타일 = 17916209, P<.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L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다.

위의 <표 4>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긴 머리

<표 1>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 관련 요인 분석표

요인명 및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I	II	III	IV
〈요인 1: 호의성 요인〉				
따뜻한 - 차가운	<u>.732</u>	1.396E-02	.129	-2.564E-02
착해 보이는 - 못되 보이는	<u>.716</u>	-9.330E-02	.216	4.890E-02
유순한 - 고집스러운	<u>.709</u>	-.130	.221	.149
인상이 좋은 - 인상이 좋지 않은	<u>.693</u>	9.401E-02	.244	-.125
편안한 - 불편한	<u>.676</u>	-3.998E-02	.186	-.193
상냥한 - 무뚝뚝한	<u>.667</u>	.118	.141	.314
부드러운 - 딱딱한	<u>.628</u>	.107	.115	-3.513E-04
자연스러운 - 인위적인	<u>.622</u>	-8.730E-02	.176	-9.896E-02
사랑스러운 - 미워보이는	<u>.611</u>	7.968E-02	.352	.211
보기 좋은 - 보기 싫은	<u>.610</u>	9.085E-02	.353	.266
친밀한 - 낯선	<u>.583</u>	6.807E-02	.169	.104
밝은 - 어두운	<u>.576</u>	.444	.119	-3.376E-02
귀여운 - 노숙한	<u>.575</u>	-1.894E-02	1.133E-02	-.290
까다로운 - 수더분한	<u>-.554</u>	.313	.175	7.128E-02
청순한 - 요염한	<u>.548</u>	-.248	.184	-.310
산뜻한 - 우중충한	<u>.540</u>	.342	.184	3.676E-02
호감이 가는 - 호감이 가지 않는	<u>.539</u>	.375	.329	.104
강인한 - 연약한	<u>-.520</u>	.436	-7.785E-03	.144
옛뉘 - 성숙한	<u>.471</u>	-4.879E-02	-8.558E-02	-.397
어려 보이는 - 나이 들어 보이는	<u>.424</u>	4.654E-02	5.998E-02	-.413
강렬한 - 무난한	<u>-.414</u>	.265	1.403E-03	.334
〈요인2 : 세련성 요인〉				
도시적인 - 전원적인	-.125	<u>.743</u>	.240	8.506E-02
적극적인 - 소극적인	-5.649E-02	<u>.692</u>	1.237E-02	.186
현대적인 - 고전적인	-5.910E-02	<u>.677</u>	.160	4.071E-02
외향적인 - 내향적인	1.175E-02	<u>.647</u>	-.113	.120
자신감 있는 - 자신감 없는	-5.885E-02	<u>.623</u>	.188	.319
유행에 앞선 - 유행에 뒤진	.161	<u>.569</u>	.179	.384
대담한 - 소심한	-.271	<u>.555</u>	4.417E-02	.354
에리한 - 둔한	-.183	<u>.539</u>	.319	6.368E-02
개성 있는 - 개성이 없는	-4.568E-02	<u>.522</u>	6.754E-02	.453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318	<u>.514</u>	-.109	3.947E-02
매력적인 - 매력적이지 않는	.365	<u>.459</u>	.312	.211
세련된 - 촌스러운	.290	<u>.489</u>	.371	.123
발랄한 - 점잖은	9.248E-02	<u>.484</u>	-.404	.103
진보적인 - 보수적인	-1.330E-03	<u>.476</u>	.230	.378
인기있는 - 인기없는	.425	<u>.468</u>	.244	.285
화려한 - 수수한	-1.109E-02	<u>.457</u>	-.117	.416

<표 1> 계속

요인명 및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I	II	III	IV
〈요인2 : 세련성 요인〉				
활기찬 - 차분한	.287	<u>.455</u>	-.313	.210
부티나는 - 빈티나는	.226	<u>.442</u>	.362	.143
경쾌한 - 장중한	.398	<u>.412</u>	-.119	.164
야한 - 고상한	-.202	.379	-.373	.373
〈요인3 : 품위성 요인〉				
성실한 - 성실하지 못한	.300	4.689E-02	<u>.662</u>	-.199
책임감 있는 - 책임감 없는	.232	.149	<u>.639</u>	-7.647E-03
품위 있는 - 품위 없는	.199	5.243E-03	<u>.622</u>	.134
단정한 - 너저분한	.233	.172	<u>.615</u>	-.187
유능한 - 무능한	-.107	.431	<u>.601</u>	9.692E-02
예의가 바른 - 예의가 바르지 않은	.335	-.188	<u>.591</u>	.123
얌전한 - 얌전하지 않은	.280	-.348	<u>.560</u>	-.176
위엄있는 - 경박한	8.497E-02	-5.014E-02	<u>.535</u>	.145
격식을 차린 - 격식을 차리지 않은	-2.742E-02	.296	<u>.535</u>	.195
아름다운 - 추한	.466	.259	<u>.524</u>	-8.392E-03
여성적인 - 남성적인	.242	.283	<u>.483</u>	.121
이성적인 - 감정적인	-.339	.350	<u>.470</u>	-1.131E-02
믿음직한 - 믿음직하지 않은	.323	-3.153E-02	<u>.460</u>	-.142
우아한 - 천박한	.393	1.244E-02	<u>.443</u>	-9.396E-02
〈요인4 : 개성 요인〉				
눈에 띄는 - 눈에 안 띄는	3.560E-02	.357	-8.342E-03	<u>.649</u>
돋보이는 - 돋보이지 않는	.205	.360	.223	<u>.596</u>
멋있는 - 멋없는	.264	.319	.348	<u>.535</u>
꾸며댄 - 꾸밈없이 간소한	-.238	.356	-.146	<u>.506</u>
독특한 - 평범한	-.103	.338	-.120	<u>.503</u>
화사한 - 칙칙한	.411	.364	.139	<u>.439</u>
고유근(Eigenvalue)	18.7	6.9	2.8	2.1
신뢰도(Reliability)	.8483	.9030	.8639	.7823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30.7	11.4	4.6	3.5
총 설명력(%)				50.3

40 이상은 밑줄로 표시

의 경우 커트머리나 단발머리보다 호의성 요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트머리는 단발머리보다 호의성 요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 평가에서 긴 머리, 커트머리, 그리고 단발머리 순으로 호의성 요인이 나타났다.

2) 세련성 요인

헤어스타일(커트머리, 단발머리, 긴 머리)에 따라 인상형성 요인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헤어스타일을 반복측정 변인으로 하고 인상형성 4개요인 중 세련성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

<표 2>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인상형성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헤어스타일						
	커트머리		단발머리		긴 머리		
	Mean	SD	Mean	SD	Mean	SD	
인상 형성 요인	호의성요인	90.989	15.371	85.708	14.605	92.911	16.076
	세련성 요인	89.013	19.961	87.763	16.515	69.455	1.691
	품위성 요인	56.098	10.33	52.363	9.035	60.357	12.765
	개성 요인	29.511	6.239	28.852	5.558	22.557	5.945

<표 3>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호의성 요인의 변량분석(ANOVA) 결과 요약표

Source	SS	df	MS	F	Sig.
헤어스타일	7389556.267	1	7389556.267	17916.209 *	.000
Error	125385.067	304			

* p<.05

<표 4>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호의성 요인의 사후검증결과 요약표

비교집단		평균차이
커트머리	단발머리	5.272 *
	긴 머리	-1.931 *
단발머리	커트머리	-5.272 *
	긴 머리	-7.203 *
긴 머리	커트머리	1.931 *
	단발머리	7.203 *

<표 6>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세련성 요인의 사후검증결과 요약표

비교집단		평균차이
커트머리	단발머리	1.249
	긴 머리	19.557 *
단발머리	커트머리	-1.249
	긴 머리	18.308 *
긴 머리	커트머리	-19.557 *
	단발머리	-18.308 *

(ANOVA)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5>와 같다.

위의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헤어스타일 = 12682.767, P<.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L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6>과 같다.

위의 <표 6>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세련성 요인의 평가에 있어서는 커트머리와 단발머리간의 인상

형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커트머리와 단발머리 모두 긴 머리 헤어스타일에 비해 더 세련성 요인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품위성 요인

헤어스타일의 정도에 따라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헤어스타일 정도를 반복측정 변

<표 5>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세련성 요인의 변량분석(ANOVA) 결과 요약표

Source	SS	df	MS	F	Sig.
헤어스타일	6164109.509	1	6164109.509	12682.767 *	.000
Error	147750.824	304	486.022		

* p<.05

인으로 하고 인상형성 4개요인 중 품위성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7>과 같다.

위의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헤어스타일 = 2897508.306, P<.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L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8>과 같다.

위의 <표 8>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헤어스타일에 따른 품위성 요인의 평가에 있어서 긴 머리, 컷머리, 그리고 단발머리 순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긴 머리 헤어스타일을 가장 품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고 단발머리를 가장 품위성이 없는 헤어스타일로 평가했다.

4) 개성 요인

헤어스타일의 정도에 따라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헤어스타일 정도를 반복측정 변인으로 하고 인상형성 4개요인 중 개성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9>와 같다.

위의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헤어스타일 = 13251.409, P<.05로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L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10>과 같다.

위의 <표 10>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3가지 헤

<표 8>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품위성 요인의 사후검증결과 요약표

비교집단		평균차이
컷머리	단발머리	3.734 *
	긴 머리	-4.259 *
단발머리	컷머리	-3.734*
	긴 머리	-7.993 *
긴 머리	컷머리	4.259 *
	단발머리	7.993 *

<표 10>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개성 요인의 사후검증결과 요약표

비교집단		평균차이
컷머리	단발머리	.659
	긴 머리	6.954 *
단발머리	컷머리	-.659
	긴 머리	6.295*
긴 머리	컷머리	-6.954 *
	단발머리	-6.295 *

어스타일 중 개성요인 에서 컷머리와 단발머리가 긴 머리 헤어스타일에 비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컷머리와 단발머리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긴 머리 헤어스타일이 가장 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품위성 요인의 변량분석(ANOVA) 결과 요약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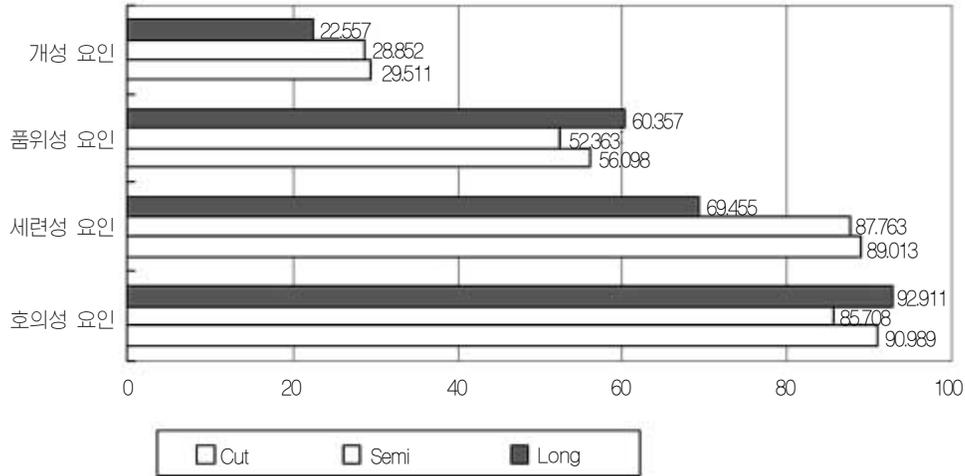
Source	SS	df	MS	F	Sig.
헤어스타일	2897508.306	1	2897508.306	17204.730 *	.000
Error	51197.694	304			

* p<.05

<표 9>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개성 요인의 변량분석(ANOVA) 결과 요약표

Source	SS	df	MS	F	Sig.
헤어스타일	665739.630	1	665739.630	13251.409 *	.000
Error	15272.704	304	50.239		

* p<.05



<그림 2>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요인별 척도 점수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305명을 대상으로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헤어스타일에 관한 인상형성 요인 중 제1요인은 따뜻한-차가운, 착해 보이는-못보이는, 인상이 좋은-인상이 좋지 않은, 편안한-불편한, 사랑스러운-미워보이는 등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이것을 호의성 요인으로, 제2요인은 도시적인-전원적인, 적극적인-소극적인, 외향적인-내향적인, 대담한-소심한, 활동적인-비활동적인, 세련된-촌스러운 등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이것을 세련성 요인으로, 제3요인은 성실한-성실하지 못한, 책임감 있는-책임감 없는, 품위있는-품위없는, 유능한-무능한, 예의가 바른-예의가 바르지 않은, 등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이것을 품위성 요인으로, 제4요인은 눈에 띄는-눈에 안 띄는, 돋보이는-돋보이지 않는, 멋있는-멋없는, 독특한-평범한 등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을 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2. 커트머리, 단발머리, 긴 머리의 3가지 유형의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인상형성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 호의성 요인에서는 긴 머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커트머리, 단발머리 순으로 나타났다.
- 2) 세련성 요인에서는 커트머리와 단발머리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커트머리와 단발머리 모두 긴 머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3) 품위성 요인에서는 긴 머리 헤어스타일이 가장 높았고, 단발머리 스타일이 가장 낮았다.
- 4) 개성 요인에서는 커트머리와 단발머리가 긴 머리에 비해 더 높았고, 커트머리와 단발머리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1) 강혜원 · 고애란, 여자 한복의 인상형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1991.
- 2) 김양휴, 패션 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40, 1996.
- 3) 도주연, Hairstyle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변화분석 - Computer Graphic Simulation 을 이용하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5~58, 1991.
- 4) 문영보,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62~64 1991.
 - 5) 박혜선, 의복에 대한 의미미분척도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6) 이경희,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7) 이선경, 남성복 유형과 얼굴 매력성이 직업 특성 및 인상추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8) 이선경 · 고애란, 남성 의복착용자의 의복유형과 얼굴의 매력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Ⅰ) -직업 추론 및 의복인상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2), 230~241, 1995.
 - 9) 조용진, 얼굴, 한국인의 낮, 세계절출판사, 1999.
 - 10) Asch, E.,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41(30), 258~290, 1946.
 - 11) Burger, H. I., Dimensions of Physical Attractiveness : How Others See 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1981.
 - 12) Butler, S. & Rossel, K., Research note : The influence of dress on students' perceptions of teacher characteristic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7(3), 57~59, 1989.
 - 13) Cash, The Psychology of Cosmetics : A review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Washington, D. C : Cosmetic, Toiletry & Fragrance Association, Inc, 1985.
 - 14) Conner, B. H., Peters, K. & Nagasawa, R. H., Person and costume :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1), 32~41, 1975.
 - 15) Delong, M. R.,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Journal of Home Economics*, 60(10), 784~788, 1968.
 - 16) Freedman, J. L., Sears, D. P. & Carlsmith, J. M., *Social Psychology*, 2nd ed., N.Y : Prentice-Hall Inc, 1981.
 - 17) Graham, J. & Jouhar, A., The effects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3, 199~208, 1981.
 - 18) Graham, J. A. & Furnham, A., Sexual differences in attractiveness ratings of day/night cosmetic use, *Cosmetic Technology*, 3, 36~42, 1981.
 - 19) Mahannah, L.,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vada, 1968. In Horn, M. J. & Gurel, L. M.,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 20)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D. H., *The Measurement of meaning*, 4th ed.,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8.
 - 21) Pancer, S. M. & Meindl, J. R., Length of hair and bearded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6, 1328~1330, 1978.
 - 22) Peterson, K. & Curran, J. P., Trait attribution as a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s for hair style. *Journal of Psychology*, 93(2) : 331~339, 1976.
 - 23) Sears, D. O., Freedman, J. L. & Peplau, L. A., *Social Psychology*, 5th ed., New Jersey : Prentice - Hall, 5~6, 1985.
 - 24) 神山進, 牛田聰子, 田庸, 容姿に関する暗黙裡のパターンリテイ理論, *繊維製品消費科學誌*, 30(9), 33~43, 1989.